

한국산 Polyester SF 산업피해 결정

중국, 6월초부터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전망 ... 무혐의 입증이 관건

한국산 Polyester Staple Fiber의 덤핑 여부를 조사중인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최근 산업피해 결정을 내려 관련 화학섬유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화학협회는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최근 한국산 Polyester SF 덤핑판매로 자국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SETC의 결정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MOFTEC)는 이르면 6월초 덤핑마진 예비판정과 함께 반덤핑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 조사당국은 중국의 Polyester SF 생산증가 억제,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액 증가세, 투자수익 증가속도 둔화, 실업률 상승, 임금상승률 둔화 등을 판정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2001년 9월 Polyester SF를 생산하는 휴비스, 새한, 고합, 대한화섬 등 화섬협회 회원사 4개와 비회원사 3곳에 덤핑조사와 관련해 10월17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었다.

한국화학협회는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에서 중국이 제기한 산업피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했다. 또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국내기업 실사 때도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1년 전체 Polyester SF 수출액의 36.3%인 2억100만달러 상당을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은 한국산 Polyester SF의 2000년 전세계 수출액 중 41.1%(2억8225만달러), 수출량은 42.5%(34만7498톤)를 차지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편, 국내 화학섬유기업들은 반덤핑을 피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SK케미칼이 2001년 8월 중국 칭다오(靑島)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효성, 코오롱, 휴비스 등이 잇따라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코오롱은 해외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성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시장 파악을 위해 최근 현장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2001년 11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스판덱스 3650톤 공장을 안공했으며, 장기적으로 증설을 통해 중국 최대의 스판덱스 공장으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휴비스도 중국 쓰촨(四川)성 일대에 Polyester SF 30만톤 공장을 건설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중국 지방 정부와 협의중으로 구체적인 중국 진출시점을 검토중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6/ 04 >